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1-7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분명히 이해해야 히브리서 11장 전체뿐 아니라 믿음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잘 알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라는 단어입니다. **휘포스타시스=실상, 실제, 본질,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꾀데기가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본향입니다.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히 11:13,16a)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본향을 지금 보는 것같이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엘렝코스 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의 책망이란 단어가 바로 엘렝코스입니다. **엘렝코스=증거, 책망, 깨우침**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깨우는 것입니다.(히 11:2)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보이는 세계를 전부로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만물은 원래 무엇인가 나타나 있던 것에서 왔어'라고 말하는 것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세계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히 11:3)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본향을 지금 보는 것같이 확신하는 것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예배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히 11:4a)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예배에는 예배자와 예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인 땅의 소산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창 4:3~5) 가인은 예배를 가볍게 여겼으나 아벨은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배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는 나 자신과 내 죄를 덮을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형 가인의 시기 질투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면 이 땅에 잘 되어야 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고 맙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아벨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사람의 상식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런데 아벨의 믿음 이야기는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히 11:4b) 믿음의 사람 아벨은 그는 죽었어도 지금까지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계속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예배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이런 믿음의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 동행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히 11:5,6a)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창 5:24) 유다서의 에녹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에녹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부터 300년간 이전의 자신과 아주 다르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변질되면 안 되고 변심해도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음성 성품 능력들을 보고 듣고 감탄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동행입니다.(신 29:2~4) 일어난 일만 보고 감춰진 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에녹은 감추어진 세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다면 에녹같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430장 1,4절)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3. 준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준비합니다. 여행할 때에도 명절 때에도 이사 갈 때에도 준비합니다.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준비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히 11:7) 노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120년 간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계속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의 가족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준비는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암 4:12b)

혼인 잔치 때 준비된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준비 안 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본향 갈 준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세상 것은 준비되었는데 영원한 것은 준비 안 된 사람이 나옵니다.(눅 12:16~20) 확실하게 방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본향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을 지금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벨처럼 예배드리고, 에녹처럼 동행하며, 노아처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 나눔의 시간 ○

1.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오늘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3.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의 동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4. 본향에 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구역 식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